잘 가 르 치 는 대 학
ACE EWHA WOMANS UNIVERSITY

2017 동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Ewha Fiends in Vietnam)

베트남 다낭

- 희망마을 고아원

2018. 1

김*은 (국어국문학)

이화봉사단에 합격한 후 한 달 동안은 베트남에 간다는 소식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 같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벌써부터 좋은 스펙 쌓네. 그런데 여자들끼리만 가면 재미없겠다."라는 말이었다. 언제부터 해외봉사가 연애(엄밀히 말하면 '이성애')의 장이 되었는지. 봉사가 스펙이고 인간관계가 사업이 되어버린 그 얄팍함이 씁쓸하다 못해 측은하게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라고 봉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봉사를 할 때마다 매번 개인적인 경험 그 이상의 큰 뜻을 품고 있다고 위안 삼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나 하나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다. 늘 '주고 싶은 나'는 있었지만 정작 '받고 싶은 누군가'의 항은 비어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번 해외봉사는 내게 여러 의미로 처음이었다. 처음 해보는 해외봉사, 성인이 된 후로는 처음 나가보는 해외, 그리고 새삼 처음 깨달은 '타인'의 존재.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한 시간을 합치면 한 달 남짓 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좋아할까, 이 말을 해도 될까, 유치해하지 않을까, 어려워하지 않을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리며 꾸러미를 채워나갔다. 그런데 희망마을 고아원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시간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고민은 어쩌면 아이들보다는 수업이라는 매개체에 더 향해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아이들은 수업 자체보다 수업을 할 우리를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아이들은 수업에서 만든 작품보다 그 작품을 본 우리의 칭찬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고심해서 준비했던 말 한 마디 한 마디보다, 순간순간 주는 눈빛과 애정표현에 더 반응하고 기뻐했다.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싶어 고마우면서도,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적은 아이들의 마음이 쉽게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하였다. 아이들에겐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지 모르는 내가 감히 그들에게 큰 사랑이나 훈계를 줄 자격이나 되는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벽화봉사를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떠나는 날, 중학생 수업을 들었던 한 아이의 표정 덕분에 그 동안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이런 이별이 익숙하다는 듯 담담하면서도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은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나 함께했다는 사실뿐이라고, 비록 조금 서툴었지만 늘 마음은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다독여주는 듯했다. 그 시간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랬듯, 그들의 인생에 새롭게 들어온 타인의 존재가 그들을 조금은 성장시켰으리라고 믿는다. 서로의 인생에 뜻밖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길.

내가 그곳 다낭에서 얻은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친구들이었다. 든든한 언니, 잘 통하는 친구,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 동생들. 어떻게 스무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전부 정이 들겠어, 했던 것에서 몇 달이 지난 지금은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의미로 남게 되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꼰대 같지만 그래도 사서 한 고생 덕분에 우리끼리의 더 유대감이 깊어졌던 것 같다. 지친 마음에 아이들보다 나를 앞서 생각하게 될 때도 있었지만, 그때

마다 돌아보면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하는 일'로서의 봉사였다.

봉사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베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봉사는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평소 나의 위치에서는 보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을 끊임없이 헤아리게 되니 말이다. 내가 돕고 싶을 때가 아닌, 상대가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를 생각하는 마음.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친구를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아닌, 조금 다리를 굽혀 키가 다른 친구와 눈을 맞추려는 다정함. 이화봉사단의 일원으로 지낸 덕분에 나는 이런 넓고 예쁜 마음들을 배울 수 있었다. 다낭에서의 시간은 여러모로 내게, 태어나 처음 받아본 선물과 같았다.

김*은 (체육과학)

나는 봉사를 해 본 적이 없다. 경험이 있어도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 그게 다였다. 처음 고아원을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막막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고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보였다. 걱정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첫 수업의 보조를 맡았을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아이들이 몇 몇 보였다. 수업을 어떻게 따라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이름을 물어봐 주기도 했으며, 대화를 시도하려했다. 어떤 아이들은 수업을 하든 말든 시큰둥해 보였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를 장난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렇게 첫 날을 힘들게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잡으려 했던 것 같다. 둘째 날부터 그래도 어제 경험은 해봤다고 무언가 익숙해졌는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게 낯설지 않았다. 조금씩 정 들어갔고 더 관심이 갔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보내고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나는 절대 울지 않을 줄 알았다. 잘 참고 있다가 너무도 서럽게 우는 친구를 보고 눈물이 갑자기 터졌다. 더 마음이 갔던 친구가 울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평소에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던 친구들은 더 울었다. 미운 정이 들었는지 더 안아주었다. 다음 날은 우리는 고아원에서 벽화봉사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아 그 날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며 인사했다. 그리고 벽화봉사를 하러 다음 날에 왔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짧게라도 인사하고 싶었는지 우리 앞에 한, 두 명씩 나타났다. 그리고 수줍어하며 편지를 건넨 뒤, 마지막으로 힘껏 안고 떠났다. 그 때 내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형용해야 할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묘했다.

가슴에 이상하면서도 울렁한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모든 아이들의 편지에 적혀있던 마지막 말, 사랑해요 라는 단어가 여태 들었던 사랑한다는 말 중에 가장 울렁거렸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하지 못하고 얼굴 한 번 더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울 뿐이었다. 나는 이번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를 통해 무얼 느꼈는지는 다시 한 번 찬찬히 정리를 해 봐야겠지만 처음 느낀 감정을 경험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했던 봉사단 친구들도,
나를 기억해 준 아이들도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모든 것에도.

차*희 (특수교육)

베트남 해외봉사는 힘들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 프로그램을 짜고 종강을 하고 2주 동안 매일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이기에 준비할 물품도 많았고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없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준비해야할 공연이 많아서 시간에 쫓기듯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은 사랑스러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의 표정과 눈짓으로 우리의 사랑을 느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특히, 유독 저를 잘 따랐던 리안이 눈에 밟힙니다. 벽화봉사가 끝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떠나보내던 리안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별이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또다시 아이들이 이별을 겪게 했다는 점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희망고아원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기획팀이 하는 일이 없어 다른 팀원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공연팀, 물품팀 역시 수고가 정말 많았지만 특히 기록팀이 기획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 것 같아 정말 미안했습니다. 또한, 팀장언니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을 언니들이 거의 대부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롬언니, 다예언니가 팀장으로서 일처리를 빠르게 진행해줘서 베트남 해외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베트남 해외봉사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꾸준히 봉사를 실천해나가고 싶습니다.

최*희 (중어중문학)

'나 너 우리' 처음 저희가 기획했던 봉사의 주제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선생님들 보러 오겠다는 친구, 몇 장 없는 자기 사진을 건네주던 친구,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던 아이들과 '우리'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단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인간이란 없다. 우리에게 친절한 행동을 한 사람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던 사람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성격, 내 생각, 내 성공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또 아이들이 제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서로에게 감사했던 10일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고마움을 한 두 줄로 다 표현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준 베트남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언어가 아닌 눈으로, 또 마음으로 얘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떠나기 직전까지도 망설이고 잘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혹시나 제 설명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더 눈을 크게 뜨고 수업했고, 혹시나 제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봐 몇 번이고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언어의 벽을 넘어 아이들에게 집중했던 시간들이 제게 봉사활동을 더욱 뜻깊고 의미있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던 이화봉사단 친구들에게도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내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얼떨결에 맡은 물품팀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고생하며 보냈던 덕분에 이화봉사단 친구들과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8시에 나와서 부채춤을 추고, 눈 속을 뚫고 나와 물품 정리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를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이 아직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60-70명이 사용할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정신없었고, 힘들었지만 물품팀장을 맡으면서 제가 한 뼘 더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팀원들 사이에서 피드백을 조율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기까지, 조금은 벅찼던 과정이 제게 앞으로도 좋은 성장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큰 사고 없이 즐겁게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추억과 함께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친구들을 얻은 것 같아 오랫동안 봉사단이 제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 (영어영문학)

베트남 희망마을 고아원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아이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았다. 방학 전부터 일찍 만나고, 2주 동안 하루 종일 수업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물론 각오는 하고 지원을 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수업 준비와 공연 연습을 하려니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니, 방학 전부터 일찍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하루 종일 수업 준비를 했던 고단함은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열심히 가르쳐주어야지 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마지막 날이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는다. 이제 떠날 때가 되어 아이들에게 운동회 선물을 주고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편지를 써준 것이다. 계속 울음을 참고 있는데 한 아이가 주는 편지에 눈물이 났다. 우리가 4일 후면 떠나야 하는 것도 알고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이라 많이 표현도 못해준 것 같은데 우리의 페이스북 계정을 물어보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울컥했다. 아쉬운 마음에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사랑해라는 편지만 써주고 왔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이 편지를 썼다며 내게 편지를 다시 주었다. 선생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한국에 가서 다시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한국에 오니, 끝났다는 마음에 시원하기도 했지만 시원한 것 외에 무언가 남아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치어리딩 수업을 맡았는데, 치어리딩을 하려면 음악이 들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해도 별로 재미 없어할 것 같았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수업에 참여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청각장애인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내 스스로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봉사활동에 임하자 라고 다짐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끼며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방학 전부터 만나서 20명의 언니들, 친구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시연을 하고 공연연습을 하며 많이 친해졌다. 과도 다 다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이름을 외우고 친해져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2주 동안 매일 만나 수업 준비, 피드백, 회의, 공연 연습을 하니 저절로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즐거운 봉사활동이 되었던 것 같고 문화탐방도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경험, 좋은 추억, 좋은 인연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베트남 다낭 해외교육 봉사단 잊지 못할 거예요♡

천*영 (소비자학)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8일 까지 베트남 다낭 희망마을 고아원으로 해외교육 봉사를 다녀왔었다. 2017년 여름에 국내교육봉사를 다녀오면서, 해외 교육 봉사도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고, 운이 좋았던 것인지, 국내 교육봉사에서 내가 간 기관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붙었다. 준비를 하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지원한 것이긴 하지만, 출국 전까지 준비를 하면서,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학기 중에는 매주 월요일 1교시 회의와 교안, 대본, 예산안 정리를 했었고, 방학 하고 난 뒤는 출국 전까지 8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하고, 시연을 해보고, 공연 연습을 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살았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출국하지 전까지 몸보다는 마음이 지쳤던 것 같다. 매일 반복되는 시연 연습에, 텔미랑 뉴페이스 춤 연습도 잘 못 따라가겠고, 물품팀의 물품 변동 사항도 너무 많고, 누락된 물건도 다 체크해야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해서 고아원에 교육 봉사를 간 첫 날은 정말 힘들었다. 아이들도 우리가 낯설었고, 우리도 아이들이 낯설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더욱 말썽을 피웠던 것 같고 우리도 계속 인상을 쓰며 주의 시키고, 조용히 시켰다. 그렇게 이틀을 수업을 하고 나니까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쳤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때 사랑밭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내 머리를 세게 쿵 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틀 동안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조용히 시켜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이때 깨달았던 것 같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는 너무 작은데, 우리는 그것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4일은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있고, 노는 것만으로도 너무 나도 짧고 부족한 시간인데, 그 중 이틀을 아이들에게 화내고, 조용히 시키는 데 썼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뿐만 아니라 단원들이 모두 자신의 수업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수업 인원수도 초등, 중등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니 정말 만족도도 높았고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화 봉사단을 하면서 정말 나중에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를 안들을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좋았던 것 같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느꼈던 부분들도 많았다. 우선 힘들었던 점은 가장 크게 언어와 현지 상황의 유동성이었다. 언어의 경우,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어 수업을 간단하게 이틀 간 받았을 때에는 사실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 높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통역 선생님들이 계시니깐 내가 수업하는 내용만 잘 전달이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베트남어를 열심히 배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막상 고아원에 가고, 아이들이랑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너의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잘했어! 앉아! 이러한 기본적인 베트남어 말고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아이들에게 취미가 무엇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지 물어보고 싶었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통역 선생님이 한 반에 한 명 뿐이었기 때문에 내가 독점할 수 는 없었고, 결국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여이 과~(잘했어)' 이런 말밖에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다. 다시 갈 수 있다면 베트남어를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심지어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 아이들과도 눈빛으로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신기하게 다 알아듣고, 나도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마음이 통하는 데에는 무조건 언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 힘들었던 점은 현지 상황의 유동성이었다. 출국 전에 준비를 하면서도 현지의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업 환경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다. 국내 교육봉사를 갔을 때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았는데,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는 베트남이니,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출국하기 전부터도 갑자기 인원 수가 두 번이나 바뀌어 키트를 다시 주문하는 등, 정말 변수들이 너무 많았다. 고아원에서는 우선 수업을 하는 책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서 수업을 진행했고, 고아원의 위생 상태는 좋지 않았다. 수업을 하고 호텔에 돌아오면 검은색 콧물이 나오고, 목이 너무 아팠다. 또한 원래 우리가 공지 받은 대로라면, 청각 장애아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청각 장애아들을 한 눈에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싶을 텐데, 수업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매정했다. 처음에 나는 아예 수업 자체를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오는 게 뭐가 좋을까, 오히려 더 소외받는 기분이지는 않을 까, 말썽 부리지는 않을 까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해주었던 것 같다. 치어리딩이나 플래시몹 수업 같은 경우에도 노래가 들리지 않으면 따라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정말 신기하게도 플래시몹에서는 제일 잘하는 친구로 인정받기도 했고, 치어리딩도 전혀 진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따라와 주었다.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아도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참여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기특했고, 나도 그 친구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 쉽게 포기하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이 많은 나의 태도가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청각 장애 아이들을 보며 나 또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국 하지 전까지 수업 준비를 할 때에는 교육 봉사를 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시간도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가서 봉사를 하니까, 베트남에 있는 10일 동안 단 4일 밖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고, 4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그리고 그 4일 동안 아이들을 한 번 더 안아주지 못한 것, 잘했다고 말 한 마디라도 더 해줄 걸이라는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아직도 남는다. 아이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마음으로, 손짓으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10박 11일 동안 교육 봉사를 하고, 평소 해보고 싶었던 벽화 봉사를 해본 것도, 꺼뚜 초등학교에 가서 k-pop 공연을 하며 난생 처음 춤을 춰본 것도 나에게는 모두 너무 새로운 경험들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다.

우리의 인솔 교수님이셨던 김석향 교수님께서는 '떠나는 사람보다 남겨지는 사람이 더욱 슬프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과 헤어질 때 울었다. 너무 슬펐고 다시 못 볼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나보다 남겨진 아이들이 더 슬플 것이다. 특히 정말 안 울 것 같은 남자 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정말 우리가 4일이라는 단 기간에 서로 정이 많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교육 봉사의 경우, 정말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못한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다. 다시 베트남 다낭을 갈 기회가 있는 다 해도 혼자 고아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아이들과 연락도 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벌써 아이들이 그립고, 생각난다.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이화봉사단원들 모두 각자의 위치

에서, 각자의 삶을 또 바쁘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가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희망마을 고아원 아이들을 생각해보면서, 너무나도 착하고 순한, 여린 아이들의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베트남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베트남 다낭은 여름방학에 여행으로 한 번 왔었지만, 두 번째 방문한 다낭은 나에게 더욱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첫 번째 여행보다 더 많은 의미들과 많은 추억들이 담긴 곳이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 특히 4일 간 아이들과 지내면서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했던 그런 희망마을 고아원에서 내 첫 해외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내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 이 외에도 소수민족 학교, 꺼두 초등학교 가서 문화교류 한 것, 벽화 봉사를 한 것,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점을 다닌 것 등 정말 너무 좋았던 점이 많다. 내 방학의 절반이 지나갔지만, 이화봉사단 해외교육 봉사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갖다오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10박 11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잘 버텨준 우리 이화봉사단 단원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서로 의지할 수 없었더라면 절대 버티지 못했을 것 같고, 함께였기에 더욱 즐거웠던 해외봉사였다.

김*은 (심리학)

이화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봉사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화 봉사단 활동은 학기 중에 시작되었다. 오티를 마치고 월요일 1교시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나는 이미 화, 수, 목요일 1교시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에 등교해야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봉사단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잘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종강하고는 교안을 짜고 대본을 만들었는데 이때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본을 연습하는 기간 동안 그 의도가 변질된 것 같았다. 대본의 대사들을 꼼꼼히 외우면서 아이들과 소통한다기보다는 대사를 치는 연습시간이 된 것 같다. 대본의 구조만 외우고 대사를 하나하나 외우는 걸 피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준비기간이 끝나고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의 그 습한 냄새와 더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하지만 별로 베트남에 왔다는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다. 수속을 마치고 들어온 숙소는 생각보다 좋았고 다음날 있을 봉사활동을 위해 조금은 쉴 수 있었다. 봉사는 봉사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전의 준비기간도 가치 있는 것 같다. 봉사를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한 그 시간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봉사활동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첫째 날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조금 들떠 있었던 것 같다. 조용히 시키고 앉히는 일이 수업의 반을 차지했고 그것에 아이들도 봉사단인 우리들도 지치는 하루였던 것 같다. 게다가 음악수업인 내 수업이 첫째 날 마지막에 있어서 다들 힘들어했던 것 같다. 사실 음악 수업은 시끄럽게 악기를 불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아쉬웠던 것 같다. 그래도 아이들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고 악기를 불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베트남에 오기 전에 청각 장애인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음악 수업인 내 수업에는 청각 장애인이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 친구들도 잘 따라와 주었고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색깔스티커를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봉사 활동은 꼭 누구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각 장애인에게는 가치가 없을 거라 여겼던 음악 수업이 청각장애인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통해 봉사활동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보다는 봉사활동 그 자체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날부터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조금은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여전히 조용하자와 앉자는 말이 수업의 반절을 차지했지만 첫째 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다. 둘째 날 마지막 회의 시간이 다들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랑밭 직원 분들이 우리에게 봉사를 하는 목적이 본인들을 위해서인지 아이들을 위해서인지 질문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무래도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 봉사활동에 대한 준비가 너무 철저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교안과 대본에 준비한 활동 모두 진행하고픈 혹은 아이들에게 교육해주고픈 마음에 아이들을 통제하고 집중시키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회의 이후의 수업들에서는 조용하라는 말과 앉자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4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과의 교감과 관계형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 다음에 또 봉사를 가게 된다면 교

육을 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들의 생활과 환경을 경험해본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봉사의 꽃은 운동회 날이었다. 나는 물론 운동회는 끝자락도 구경을 못하고 주방에서 요리만 했지만 요리도 나름 재미있었다. 요리에 지원한 이유는 내 칼질 솜씨를 믿었다기보다는 사실 쉴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뛰어 노는 것도 즐긴다. 어릴 때 지나치게 활발한 부류의 아이였던 나라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게 좋았을 수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쳤을 나를 위한 쉬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요리를 골랐었다. 내가 요리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이다. 주먹밥과 오뎅탕을 만들어야했는데 나는 불을 다루기보다는 칼을 다루는 것이 쉬울 것 같아 칼질팀에 속했다. 당근을 채칼로 썰 때만 해도 칼질에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았지만 한 명 두 명 부상자가 발생하고 급하게 단무지가 필요했을 때 단무지를 채 썰다 실수로 손톱을 썰어버렸다. 뭐든 얕잡아보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서 다행이었다. 단무지의 공이 컸을 것이다.

운동회의 마지막은 공연과 아이들과의 작별인사였다. 봉사 준비기간에 연습한 공연들을 하나씩 끝내가며 아이들과의 작별을 조금씩 실감했던 것 같다. 이화봉사단 준비기간에 있었던 일들도 생각나면서 울 뻔 했는데 손가락 다친 일로 이미 눈물을 쏟아서 그런지 눈물샘이 말랐었다. 아니면 사실 헤어짐이 실감이 잘 안 났던 건지도 모른다. 사실 4일 만에 헤어짐에 눈물이 날만큼 정 들었다는 게 조금은 신기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나에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지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씩 느껴진다. 봉사활동은 짧다. 그런데 그 여운은 긴 것 같다. 그 시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들을 꼽아보면서 여운이 남는 것 같다. 그곳의 아이들이 벌써 나를 잊었을 수도 있고 내가 현실에 치여 그 아이들을 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봉사활동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과 그 경험으로 얻은 이런 생각들은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봉사활동도 의미 있고 재미있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역시 문화탐방이었다. 원래 내가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구경하다 경치만 찍을 생각이었는데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조원들을 만나 취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돈을 많이 챙겨가지는 않아서 내 것을 사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선물을 사는 데에 돈을 아껴야 해서 아쉬웠다. 차라리 많이 들고 가서 남겨오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하노이에서 코끼리 달린 예쁜 팔찌를 건져서 많이 아쉽지는 않다. 베트남에서 했던 경험들이 하나하나 추억이 되는 것 같다. 하노이에서 싸게 탔던 배와 밤이 되자 켜지기 시작했던 등불들, 바나힐에서 탔던 (다시는 타지 않을) 자이로드롭 다 재미있고 즐거웠지만, 그것을 함께했던 우리 이화봉사단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히 느껴진다. 난 이화인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우리 이화봉사단 사람들만큼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은 몇 없을 것 같다. 잘 맞는 조와 만난 것도 이화봉사단에 속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감사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지(심리학)

해외봉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인연'때문이었다. 대학에 들어와 동아리나 이화봉사단을 통해 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같이 하는 단원들과 친해지고 그 인연을 이어나간 경험들이 나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실제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특히 같은 조원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어 후회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에게 '해외봉사'는 언젠가 꼭 해야 하는 숙제같은 느낌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대학생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가 '해외봉사'였다. 고등학생에게 해외봉사는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특권같이 보였고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니 학교생활이며 학점관리에 치이고 학기 중이나 방학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외봉사를 간다는 게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하는 생각으로 해외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가기 전 준비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 학기 중에도 매주 만나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조원들과는 따로 온라인 카톡 회의를 하며 교안과 대본을 작성해야 했다. 과제나 시험기간과 겹칠 때도 있어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해외봉사를 간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났는데 종강 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만나 시연을 하고 서로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 어느새 베트남에 갈 날짜가 가까워졌다.

해외봉사를 하며 가장 걱정했던 것이 아이들과의 소통이었다. 베트남어를 배워가긴 했지만 이름이나 나이를 묻거나 짧은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정도였다. 게다가 베트남어는 성조도 있어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 일도 많았다. 예상 밖의 난관도 있었다. 고아원에 정상아동들과 청각장애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수업은 정상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청각장애 아동들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지에 가니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많아 거의 모든 수업에 함께 참여하였다. 수화선생님이 따로 없어, 듣거나 읽을 줄 모르는 아동들은 통역 선생님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 해서 그 아이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 아이들에게도 잘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 아이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었다. 나 말고 다른 단원들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다들 아이들에게 수화를 배워 어설프지만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하였다.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날 눈물이 났던 이유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 아닐까. 서로의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언어를, 아이들은 우리의 언어를 배워 소통하고자 한 과정이 있었고, 대화는 안 돼도 정을 쌓고 친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먹먹해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내 교육봉사와 달리 해외봉사는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컨택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난항을 겪어야 했다. 최대한 준비를 해가도 막상 현지 상황에 맞지 않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얘기한 청각장애 아동들이나 수업인원 문제와 같은 상황처럼 말이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온 것들을 백프로 보여주지 못해 속상해하거나, 예

상했던 상황이 아니라 해서 당황하고 끝까지 처음 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교안이나 대본을 수정해 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아마 해외봉사를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아니었나 싶다. 살아가면서도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여기서 겪었던 일들, 대처방식 등을 떠올리며 해결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하고, 국내에서 이런저런 교육봉사활동들을 해오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던 시기였다. 뭔가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봉사를 많이 다니면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꼭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적성과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회의감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다 저번 학기에 사회봉사II 수업을 듣게 되었고, '봉사'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이전까지 나의 봉사경험들을 떠올리며 내가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다 찾은 답이 '사람'이었다. 같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 또는 봉사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대학에 와서도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같이 간 사람들과 졸업 후에도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좋은 사람들을 한 번에 여러 명을 알게 되어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 인연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싶은 바람이다. 같이 갔던 단원들, 선생님 모두 감사했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김*롬 (건축학)

'졸업 전에 이화에서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한 이화봉사단이었지만,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봉사'의 의미라던가 팀워크, 베트남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을 직접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학문관에 약 2주를 매일같이 모여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였는데, 준비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나를 포함한 팀장들의 실수로 학생들의 인원수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나름 꼼꼼한 편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다니 충격적이었다. 전체 팀원들이 급히 부족한 키트를 추가로 구입하고, 교안과 대본을 수정하며 일을 무마시켰지만, 다른 팀원들에게 미안함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고아원 측에서 전체 인원수가 반 가깝게 줄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또 한 번 교안 등을 수정하면서 해외 봉사활동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지, 또한 이를 유연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베트남에 가서는 말 그대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루는 수업 중 두 남자 아이들이 몸싸움을 벌였는데, 우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두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때 베트남 현지직원이신 프엉 선생님이 두 아이들을 말리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또, 둘째 날 수업이 끝나고 모인 전체회의에서, 프엉 선생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동시에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번 눈물을 보이셨다. 베트남 선생님의 눈물에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과연 나도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준비해 온 것들을 해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헤어지는 날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을 본 이후로 나는 줄곧 '봉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여전히 고민 중이다.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자 이곳에 왔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떠난 이후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또 아이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동행했던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아직 여성 인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일을 하는 주도적인 젊은 여성들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 외에도 이화봉사단을 통해 '사람'에 대해 배운 것들 또한 너무 많다. 힘든 활동기간 내내 의지했던 룸메이트 다예, 지각 한 명 없이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3조 팀원들, 항상 밝고 재미있는 짝조 동생들, 열심히 예쁜 사진들 찍어온 기록팀, 귀엽고 성실한 가희, 세린이, 다희, 지연이, 하은이... 19명의 동생들에게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봉사를 다녀온 지 거의 2주가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베트남에 있는 꿈을 자꾸 꾼다. 그만큼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큰 배움이었다. 이렇게 졸업 전에 이화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

권*진 (국제사무학)

베트남에 가기 전 가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동안 언제나 긴장상태였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하는 줄 몰랐으며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 1명이나 2명을 상대로 교육봉사를 해봤던 내가 과연 말도 통하지 않는 20명 정도의 베트남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또한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 독감에 걸려 베트남에서의 빡빡한 일정들을 내 몸이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걱정들을 안고 베트남에 도착하여 시작된 첫 일정은 보육원에서의 교육봉사였다. 내가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에 사실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갔다. 수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수업이 생각했던 것만큼 수월히 진행되지 않아서 솔직히 속상했다. 수업 관련 자료와 준비물들을 꼼꼼히 챙기고 시연까지 해본만큼 아이들과 수업이 정말 잘 될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서 수업을 해보니 아니었다. 수업 중간중간에 교실을 들어오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청각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현지의 상황을 내가 들었던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수업을 해야한다는 급한 마음에 조용히 시키느라 인상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로 사랑밭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수업을 통한 지식 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이를 깨닫고 난 후에는 수업을 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짜여진 대본과 교안의 틀에 갇혀서 아이들을 그에 맞추려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교안을 수정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유연한 사고와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국내에서 정말 많은 교육봉사를 해보았는데 한 번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본 경험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봉사에서 청각 장애 아동들이 수업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다.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내 편견이었다. 한 번은 수업에서 청각 장애 아동들로 이루어진 조를 맡은 보조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청각 장애 아이들이 눈으로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을 관찰하고 나에게 손짓을 통해 질문하면서 수업에 참여하였다. 단지 듣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다른 아이들처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언어인 수화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도 열심히 참여해주는 청각 장애 아동들이 너무 고마웠다.

이번 베트남 봉사를 통해 느낀 것은 두 가지이다. 유연한 사고와 대처방식의 중요성과 편견 없는 관점의 필요성이다. 사실 이것들은 살면서 삶의 자세로 중요한 것들이라고 흔히 들어온 것들이고 나도 어느 정도 저런 자세를 갖추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봉사 경험을 통해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왜 삶에 저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지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다.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만들어준 이번 봉사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김*정 (화학신소재공학)

베트남 봉사를 가기 전의 일정은 결코 느슨하지 않았다. 매일 오전에 모여 오후에 회의를 끝냈다. 집에 돌아가면 회의내용에 따라 교안과 대본을 수정하고, 다시 외우는 하루하루를 반복해야 했다. 다크써클이 턱을 넘어설 것만 같을 즈음 출국하는 날이 눈앞으로 왔다. 출국하기 전 날까지의 피곤이 쌓여 활동에 대한 설렘보다 고단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베트남에 도착해 덥고 습한 공기를 느끼는 순간 실감이 되기 시작했다. 그간의 노력을 펼쳐보일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근거림이 커져갔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조용히 하라는 뜻의 '임랑'을 소리쳐도 아이들은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며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고 뛰어다니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수업은 너무나 행복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분위기에서도 마냥 귀엽게만 보였다. 아쉬움이 있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아이들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였다. '그냥 기본적인 말들만 외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나태한 생각이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교류를 막은 것 같아 속상했다. 또한 청각장애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그날 밤 베트남어를 다시 공부하고 베트남 수화에 대해 찾아보았다. 다음 수업부터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도 '잘했다, 고마워' 등의 짧은 수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에게 다가갈수록 아이들은 더 큰 마음을 보여주었다. 봉사단의 차가 다가오면 쪼르르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일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함께했던 영상을 보면서 감정이 차올랐다. 체력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더 반응해주고 웃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하고 속상했다. 뒤돌아 울고 있을 때 베트남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울고 있다고 불렀다.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더 마음이 아팠다. '리엔'도 울면서 다가왔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어도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달래지지 않았다.

베트남에 다녀온 지 1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베트남에 있는 듯하다. 아이들이 '이게 뭐야?'를 뜻하는 수화인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만 핀 모양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다가올 것만 같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는 여행갈 수 있는 날짜가 2일 밖에 없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을 끝내고 온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10일간의 활동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다.

고*수 (국제학)

면접 때 선생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우리는 단기간으로 봉사를 가는 것이라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는데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답을 요구하진 않으셨다. 그저, 단기간 해외봉사인 것만 새겨두라는 뜻이었다. 물론 이화봉사단에 지원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가끔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가슴 한편에서는 그저 단기간 해외 봉사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이화봉사단의 존재와 영향이 결국 베트남 아이들에게는 일시적이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출국하기 전까지, 말마따나 단기간 봉사 치고는 생각보다 준비할게 너무나 많았다. 프로그램 준비와 시연, 그리고 공연연습까지... 매일 학교를 나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2-3주였다. 돌이켜 보면 그 땐 뭐가 그렇게 다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다시 베트남을 간다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준비과정에 임할 것 같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변하지 않을 사실인 것 같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수업준비에만 연연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첫 날 오후 수업은 좀 난장판이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산만했고 시끄러웠으며, 서로 소통이 안돼서 어찌할 줄 몰랐다. 특히 아이들이 통역사 선생님의 말씀마저 듣지 않고 계속 떠들 때는 좀 화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과 수업을 다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좌절감을 느꼈다. 더하여 예상치도 못한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니 약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준비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내내 유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지만, 당시 우리 기준에서는 모든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 게 아니지만, 그 때는 작은 변수마저도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렇게 진정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해본 채, 우리는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사랑밭 관계자분들과의 회의를 마친 날, 깨달았다. 수업을 끝내지 못해도, 수업이 조금 시끄럽고 아이들이 산만할지라도, 아이들이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지했다. 조금 오그라드는 표현일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작은 관심마저도 큰 사랑으로 다가가곤 한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내 마음가짐은 180도 바뀌었다. 생각해보니 정말 1분 1초, 아이들을 안아주고 예뻐해 주기도 바쁜 시간이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활동에 임하니 체력적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말을 안 듣는 아이들마저도 눈에 너무 예뻐 보였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구호도 만들어 보며, 눈빛과 행동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한대로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어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주었다.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느낀 점은 단기간 봉사여도 고아원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사랑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부금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 이런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이런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이화봉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박*린 (시각디자인)

'베트남어도 못하는데 가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두고온 짐은 없나? 혹시라도 뭘 잘못하면 어떡하지, 많이 힘들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국 전 타이트했던 일정 때문에 체력을 많이 소진한 나머지, 베트남을 가기 위해 출국하는 직전까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게다가 수업 첫 날,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말을 안 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가뜩이나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자리 앉히는 데만 거의 삼십 분 정도를 소요하고,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집중!' 같은 단어만 수십 번을 반복하니 우리 모두 기운이 빠져 있었다. 호텔에 오니 '이제 하루 지났는데 열흘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걱정에 앞이 막막했다.

다음 날 아침, 고아원을 가는데 전날처럼 아이들과 씨름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러나 고아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반갑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달려오는 걸 보고 수많은 걱정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첫 날에는 생판 처음 보던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둘째 날엔 모두 낯이 익었고, 전날 하루 종일 있다 보니 그새 정이 들었는지 나 또한 아이들이 무척 반가웠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외우려 해도 외워지지 않던 베트남어들도 막상 베트남에 오니 술술 외워졌다. 청각장애 애들도 수업에 참여하는 전체 아이들 중의 1/3은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간단한 수화들도 배웠다. 아이들과 친해지니 첫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재미있고 보람찼다.

힘든 점도 있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안쓰러운 마음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말을 듣지 않아 괘씸하기도 했다. 우리는 온종일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쉽게 얼굴을 붉히곤 하였다. 그러나 사랑밭 직원들과 이화봉사단이 모여 첫 회의를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 우리는 수업용 키트가 모자르니 아이들을 중간에 더 들여보내지 말아 달라, 혹은 청각 장애 아이들은 수업에 방해되니 저녁 수업 때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사랑밭 선생님은 우리에게 봉사가 끝나면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다. 그 분은 우리가 너무 교안을 따라가기 급급한 나머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꾹꾹 담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비춰진다고 하셨다. 돌이켜 보니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봉사를 하기 위해 왔는데 정작 기억 속의 나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모습뿐이었다. 스스로가 한심하였다. 나 편하자고 온 봉사가 아닌데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기만 한 것 같았다. 선생님 말씀을 들은 뒤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맞춰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다음날부터는 더 값지고 보람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안무를 틀리고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도 그저 재밌기만 했다. 조그만 칭찬에도 무척 좋아하며, 그 칭찬을 받기 위해 서로 관심을 끄는 모습,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눈빛,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거는 아이들의 허기를 채워 주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는 것 같았다.

운동회와 공연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 부채춤과 케이팝을 출 때 아이들이 아무런 미동도 없이 봐서 살짝 민망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며칠 동안 늦게까지 학교에 남으며 연습했던 것을 생각하니 공연이 문제 없이 끝났음에 홀가분했다. 플래시몹과 치어리딩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췄다. 이때는 대열을 맞추기보다 진윤경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 없을 무대에 서보는 기회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만족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따라와 줬고, 주먹밥도 재밌게 만들어 먹었다. 운동회 마지막 시간에는 기록팀이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지낸 시간들을 담은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감상하였다. 첫 날 너무 힘들어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마지막 날이 오고, 아이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며 그 동안 쌓아왔던 추억을 감상하니 눈물이 쏟아졌다. 짧은 시간 동안 깊게 정이 들었는데 벌써 떠나야 하니 막막했고,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슬퍼졌다. 특히 나를 유난히 따르던 청각장애를 가진 Linh이라는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울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수업을 하던 보통 날 때도 헤어짐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마다 속상했다.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 때엔 쉬는 시간마다 교실 앞 난간이나 그네에서 청각 장애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으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고 한 번 더 웃어줄 걸' 하고 후회한다.

봉사를 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 얼굴 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당시엔 진윤경 선생님과 사랑밭 선생님 덕분에 좋은 곳만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가서 그런 것들이 떠오를 줄 알았지만, 글을 쓰는 지금 베트남을 떠올리니 아이들 얼굴과 까맣고 깊은 눈동자가 제일 먼저 그려진다. 학기 중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8시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교안과 대본 작성하고, 팀플을 했고, 방학 중에는 아침부터 늦저녁까지 여덟 시간 이상을 매일 나와 공연 연습과 수업 시연을 해서 봉사활동 지원을 한 내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해외 봉사를 다녀 온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지녀야 할 소중한 가치를 배워왔고, 미술 교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또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기 위해 갔는데 사랑만 받고 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크게 남는다. '봉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베트남에 가서 고생은커녕 편하게 쉬고, 좋았던 일들만 경험한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 내내 기분이 이상했다. 호이안과 다낭에 다시 가더라도, 연두색 후드를 입은 스무 명 친구들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베트남에서의 추억이 더 소중하게 남는다.

최*은 (영어교육)

봉사를 가기 전 준비과정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아 당황스러웠고, 아이들 역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해서 이상적인 상황이 연출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게 해외봉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나 싶다. 정해진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만 하는 아이들과의 수업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봉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아이들과 피부를 맞대고 교감했던 시간은 더욱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아직도 이화봉사단을 보던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경계심 가득하던 눈빛이 점점 반가움과 사랑의 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처음 만난 사이이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과 희망을 아이들은 온 마음으로 받아주었고 함께 교감할 수 있었다. 해가 져서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 아이들과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고 내일을 약속하며 헤어질 때의 뿌듯함과 따듯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푸엉 선생님과 통역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우리를 대해주는 진심어린 말과 행동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첫 전체 회의 날 푸엉선생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아이들을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기를 부탁하시며 고맙다는 말을 고개 숙여 하실 때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교육봉사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준비해간 것을 전달하는 것 이후로 밀려나있었다는 것에 많은 반성을 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지식이나 키트를 전달하는 것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헤어지는 날에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아이들을 만나러 갔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우리를 그리워할지 눈에 그려져서였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운동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던 순수한 감정들을 나는 잊지 못할 것 같다.

한국에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면서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기록팀 소속으로 아이들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시간이 더 길었다. 아이들은 기록의 대상이 아님을 그들을 찍는 행위조차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귀국하고서야 하게 되었다. 사진 한 장을 더 남기는 것보다 한 번 더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올 걸, 하는 후회도 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준 것 보다 아이들이 나에게 되돌려준 마음이 너무 따듯하고 예뻐서 한동안은 가슴이 먹먹했다.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은 식사를 잘 했을지, 내가 등교를 할 때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녀왔는지 일상에서 문득문득 생각이 계속 났다. 아마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아이들 생각이 날 것 같다.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날 수 있길 바라고 각자의 인생에서 빛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허*연 (교육공학)

대학교에 입학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해외봉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보람감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보았기에 이번 이화봉사단에 선발되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기대되기도 했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팀원들과 종종 만나 각자 짜온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주며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겨울방학에도 종강 이후에 바로 학교에 나와 2주 동안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 시연을 하고, 회의도 하고, 공연 연습도 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방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기는커녕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와 저녁이 훌쩍넘은 시간에 집에 가는 것이 이게 정말 방학을 한 것이 맞나..하는 생각도 들었고 용인에서 서울까지의 통학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팀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다보니 학교에 도착해서 회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었고 베트남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 앞으로 10박 11일동안 봉사할 곳인 희망마을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이화봉사단이 낯선 외지인이었을 텐데 반갑게 맞이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으로 빛나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인상깊고 눈에 아른거려 빨리 다음 날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봉사기간동안 아이들과 전통등 만들기, 한국의 민속놀이 체험하기, 비누 만들기, 꿈트리 만들기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기를 펼쳐 보이며 자랑하는 아이, 다리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며 눈을 맞추고 웃어주던 아이, 자신의 꿈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간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던 아이. 아직까지도 모두 눈에 선합니다. 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받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에 다녀온 베트남으로의 해외봉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리 배워간 간단한 베트남어로 소통하는 것을 제외하곤 언어적인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박 11일이라는 봉사 기간 동안 느낀 바를 일일이 다 글로 형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사 기간 동안 느꼈던 소중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수시로 꺼내보며 지금보다는, 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저를 비롯한 모든 이화봉사단 단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약 두 달간의 봉사 준비과정, 그리고 10박 11일의 봉사일정동안 서로서로 도우며 매사에 최선으로 임했던 이화봉사단 언니, 친구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었고, 이화봉사단으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인생에 길이 남을 교훈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김*영 (생명과학)

해외봉사를 준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준비하면서 원칙을 벗어나면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잘하고 와야겠다는 생각과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하는 기대와 걱정을 적절하게 안고 처음 다낭을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러나 함께 한 코디네이터분 중 한 분이 말했듯이, 아이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온전히 아이들의 그릇에 담고자하는 의욕이 앞섰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고, 이루어내고 싶은 방향으로 강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수업을 망쳐도 좋고, 준비해온 그대로 하지 않아도 좋았다. 어떤 강박이 나로 하여금 성공과 완성에 목매달게 하였는지,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 목매달고 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장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고 놀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이었으며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다낭에서의 경험이 발판이 되어 다음 봉사활동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오롯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함께 놀고, 웃고, 사소한 장난 하나라도 더 하고 오는 것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뻣뻣하고 융통성이 부족했는데, 예정에 없었던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오고, 아이들 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 유연해진 것 같기도 하다. 아이들은 티 없이 맑고 순수했으며, 그 맑은 웃음에 첫만남에 긴장해서 굳어있던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사랑을 주러갔지만 아무 이유 없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되었다.

해외봉사를 통해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한국과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지만 냉담했던 아이들 반응까지 그 무엇하나도 잊고 싶은 기억이 없다.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갖는 힘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내 옆의 사람이 채워주고, 내 옆 사람은 내가 도우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정을 나누는 경험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함께 10박 11일을 보내면서 정말 즐거웠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토록 많은 정을 나눈 것은 처음이었다. 이 따뜻한 경험은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고, 베트남 다낭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워할 것이다.

한*정 (건반악기)

처음 베트남 봉사를 지원할 때는 만약 봉사를 가게 된다면 정말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었다. 국내 봉사는 수차례 다녀오며 봉사라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체력소비가 크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외봉사는 준비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일단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업에 자주 써야하는 단어들은 베트남어로 정리해서 암기해야했고 아이들의 수준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난이도 선정도 쉽지 않았다. 동기들의 수많은 피드백들 속에 수업은 점점 틀을 갖춰갔고 날짜가 다가오자 어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베트남에 도착하고 고아원에 도착해 아이들을 처음 맞이했던 첫날은 사실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다. 수많은 아이들을 처음 받아들여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일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또한 오후수업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자 하여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첫날 쉽지 않은 수업의 진행에 이튿날 있었던 플래시몹이 몹시 걱정이 되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수업 진행은 원활하지 못했다. 예상인원에서 열명 이상이 추가되고 청각장애 아이들까지도 수업에 함께하게 되자 아이들을 집중시키기가 더욱 힘들었다. 결국 준비해갔던 수업에 절반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비해갔던 것을 얼마나 하고 오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을 들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했던 아이들에게는 수업이 얼마나 진행되느냐 보다 함께함을 느끼고 칭찬받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수업이었을 것임을 느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안아주고 사소한 것에 칭찬해주고 예뻐해 주는 것 뿐 이지만 이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주교사 수업을 끝내고 마지막 운동회를 끝내고 인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는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잊지 못 할 거라는 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들이 가득했다.

이번 베트남 희망 고아원 봉사에 함께했던 봉사자들, 함께 보냈던 울고 웃었던 시간, 여행하며 쌓았던 추억들 모두 잊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이 시간을 추억하며 한번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번 봉사는 스스로에게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날 먼 타지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흠뻑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이화 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강*예 (역사교육)

해외 봉사는 대학생활 내내 나의 버킷리스트와 같은 존재였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의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고 추억을 나누는 건 또 다른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었다. 그러다 졸업을 앞둔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처음엔 마냥 좋기만 했다. 졸업 전에 학교가 나에게 주는 선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티를 마치고 팀장이 된 날, 그렇게도 원하던 내 꿈은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봉사를 오기 전까지도 그 부담감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그 당시엔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일이 몇 년 동안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었던 것 같다.

봉사를 오고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니, 마냥 좋았다. 내가 여기 와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나의 눈을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너무 밝고 열정적이었다. 여기서의 아이들은 나의 작은 관심도 기억해주고 좋아해 주었다. 때 묻지 않은 그 마음이 정말 따뜻했다.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꼈다. 작은 눈길, 손짓 하나도 이 친구들에겐 소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같이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값졌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렇지만은 않았다.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장난을 치려는 아이들이 있었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가장 후회되면서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 그 시간들이 지금 너무 그립고 소중한데 부정적인 감정을 전한 거 같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하지만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슴 한 편이 쓸쓸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밝고 이쁜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셨을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나이에 가족 없이 혼자서 이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고 생생하다. 많이 보고 싶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바쁜 일상에 치여 많이 잊게 될 지도 모른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들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일 것이다.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해외 봉사에서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나 자신의 틀을 조금은 깨는 계기이기도 했다. 나는 누군가를 이끌고 앞에 나서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그런지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많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다. 그래도 이 역시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따라와 준 이화봉사단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정*경 (국제학)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나의 첫 해외봉사였다. 출국하기 하루 전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수가 찾아왔다. 출국하기 몇 주 전부터 매일 만나서 하루에도 몇 시간동안 봉사 준비를 했을 때도 문제없던 내 체력이, 하필 출국 하루 전에 바닥이 나서 심한 감기에 걸려버린 것이다. 열도 심하고 온 몸을 맞은 것처럼 힘들었지만, 약기운에 버티며 간신히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모두가 각자 나름의 기대감에 부풀어 봉사를 시작할 때, 나의 시작은 홀로 호텔에 남아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봉사활동은 좋은 마음가짐과 남을 위한 배려심 등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좋은 체력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봉사하는 열흘 내내 뼈저리게 느꼈다. 이처럼 시작은 다소 미흡했지만,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남기고 온 봉사였다.

봉사 초반엔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다보니 남들에게 마음을 열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는 다른 단원들과는 달리, 나는 아이들에게 웃음한번 지어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좋은 마음가짐도 건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수업 내내 구석에 자리 잡고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며 내가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아이들, 사진을 직접 찍어보고 싶다는 아이들을 마주하며 은연중에 사진기라는 매체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아이들의 모습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모습이 아니었다. 봉사는 항상 일방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나의 틀을 그들이 깨주었다. 봉사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초반엔 아픈 와중에 봉사자로서 아이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더욱 마음을 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나에게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날 한 아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찾아와 줘서 행복했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수많은 해외 봉사자들이 단기간동안 그 곳을 거쳐갔을텐데, 그럴 때마다 이별의 아픔을 오롯이 안고 덤덤하게 다음 봉사자들을 기다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남겨지는 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초반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과분한 사랑과 정을 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봉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소중했다. 또한 소통하는 봉사에 대해 가르쳐준 이화봉사단 친구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양*연 (식품공학)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진을 찍겠다고 나선 것이 가장 후회된다. '더 잘 찍을 걸'과 '아예 내가 하지 말 걸'이다. 사진을 찍는다고 보조 조에도 안 들어가고 교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찍다보니 다른 단원들에 비해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웠다. 운동회 날에 다 끝나고 모두가 울면서 부둥켜안고 있을 때 날 기억하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매우 견디기 힘든 쓸쓸함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랑 사진 찍어달라고 날 부르는 단원들에게 좀 심술이 나서 쌀쌀맞게 굴기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사진 정리를 하다 보니 고작 이걸 찍으려고 아이들이랑 못 놀았던 걸까, 어차피 찍게 된 거 더 잘, 예쁘게 찍어 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봉사하러 가서까지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다녀온 지 한참이 되서야 깨달았다. 다른 단원들은 자신이 맡은 수업을 하는 사진 혹은 보조교사로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를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사진에 내가 없기는 해도 내 관점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나는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카메라만 너무 잡고 있었던 것은 후회된다. 사진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다 보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카메라를 통해서만 보았다니 바보 같았다. 사실 사진을 찍을 때는 웃어준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을 직접 보고 웃으며 안아주고 함께 놀아준 적이 별로 없는 것이 너무 아쉽다. 사실 하루의 마지막 수업 쯤 되면 지쳐서 표정이 굳곤 했다. 내 체력이 내 생각보다도 더 안 좋았던 것 같다. 체력을 더 길러서 한 번 쯤은 더 가고 싶은 활동이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한 다른 단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만 나누어주어도 행복하다는 것이 조금 씁쓸하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아직 부족하고 보잘 것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희망이었다. 또한 단원들을 보면서도 배운 점이 너무나도 많다. 다들 너무 빼어난 사람들이었고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 먼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남들과 다르게 '잘되면 남 탓, 못되면 내 탓' 이런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과 거의 한 달을 함께한 것은 행운이었다. 이기적이고 남 탓만 하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고민 없이 이화봉사단으로서 해외봉사를 다녀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했던 모두에게 고맙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난 아이들보다 우리 단원들을 더 사랑한다.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있으셔서 모두 괜찮은 사람들로 뽑아놓는 것 같다. 그래서 이화봉사단은 이화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다.

다만 한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여름에 갔다 온 친구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지 듣고 시작한 것이지만, 여름과 달리 겨울에는 학기 중부터 시작한 것이 많이 부담되었다. 게다가 막상 가보니 이만큼은 고생 안하고 와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다. 나는 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교안을 쓰고 대본을 쓰고 계속 수정하고 샘플을 만들고 피피티를 만들고 나누어 줄 자료를 만들고 대본을 외우는 데 적어도 30시간은 족히 넘게 투자했고 학기 중에도 해서 시험 준비에도 지장이 있었는데, 사실 다 소용없었던 것 같다. 학교 측에서는 교육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 같고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 프로그램은 꽤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게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그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좋았다. 개인적으로 달팽이 게임처럼 준비물 없이 몸으로만 놀 수 있는 게임이나 장기 그리기처럼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각자 그리는 것에 따라 모두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았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었다면 모두가 키트를 사고, 긴 설명을 외우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하게 된다면 모두가 똑같은 별자리를 그려서 각자의 별자리 지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려서 모두 이어 붙여 다 같이 커다란 밤하늘을 만들게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그럼 훨씬 덜 고생할 것 같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단원들을 너무 압박하고 혼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즐겁게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서 더 즐겁게 아이들과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나름 즐겁게 놀고 온 것 같다.